

대학급식의 친환경 농산물 이용에 대한 전남·경남지역 대학생의 가격민감성 비교

이소정¹ · 김현아^{2*}

¹조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²경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Comparative Analysis of Price Sensitivity for Using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 University Foodservices Between Jeonnam and Gyeongnam Areas in Korea

So-Jung Lee¹ and Hyun-Ah Kim^{2*}

¹Dept. of Food and Nutrition, Chosun University, Gwangju 501-759, Korea

²Dept. of Food and Nutritional Sciences, Kyungnam University, Gyeongnam 631-701, Korea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compare price sensitivity analysis for using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 university foodservice between Jeonnam and Gyeongnam areas in Korea and to suggest the optimum guideline for price increase.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600 university students respectively in Jeonnam and Gyeongnam area from July 15 to July 25, 2008; among them, 570 students from Jeonnam area and 490 students from Gyeongnam area respond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difference price (IDP) were 890 won (Jeonnam area) and 1,050 won (Gyeongnam area); Optimum price point (OPP) were 1,030 won (Jeonnam area) and 1450 won (Gyeongnam area). Price stress range were 140 won (890~1030 won) in Jeonnam area and 400 won (1050~1450 won) in Gyeongnam area. Second, point of marginal cheapness (PMC) were 500 won (Jeonnam area) and 790 won (Gyeongnam area) whereas point of marginal expensiveness (PME) were 1,170 won (Jeonnam area) and 1820 won (Gyeongnam area). Range of acceptable price (RAP) were 670 won (500~1170 won) in Jeonnam area and 1030 won (790~1820 won) in Gyeongnam area. Third, on the basis of IDP percentage and RAP, students in Jeonnam area were more sensitive to meal price increase than students in Gyeongnam area. In contrast, on the basis of Price Stress, students in Gyeongnam area were more sensitive to meal price increase than students in Jeonnam area. Hence, when using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 university foodservice, in Jeonnam area, meal price increase should be recommended to be in RAP (500~1170 won), and in Gyeongnam area, meal price increase should be recommended to be in RAP (790~1820 won).

Key words: price sensitivity,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university foodservice

서 론

최근 국민 소득이 증대되고 웰빙 및 안전 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의 높아지고 FTA, DDA 등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으로 급변하는 국제농업정세 속에서 국내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 특히 소비자들은 웰빙 트렌드로 인하여 친환경 농산물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소득과 생활수준, 그리고 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식품의 소비에 있어서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과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찾는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2).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가격이 가장 불만족스러운 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3),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비싼 가격'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4). 또한 친환경 농산물 구매 촉진을 위한 개선점으로는 '가격 인하'가 가장 많은 응답수를 보였고(2),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속성으로 가격(40.7%)이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친환경 농산물의 이용의 확산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가장 큰 제한점은 가격에 대한 부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친환경 농산물의 낮은 가격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와 함께

*Corresponding author. E-mail: hakim@kyungnam.ac.kr
Phone: 82-55-249-2220, Fax: 82-55-245-5001

전체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비록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이 높더라도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하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1).

이러한 추세로 인하여 학교급식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우선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Lee와 Park(5)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학부모의 98.2%가, Nam(6)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학부모의 96.4%가 찬성율을 보여 대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에 찬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의 만족도와 학부모의 만족도 모두 높은 수준이었다(5,7).

하지만 전체 급식비 예산이 매우 제한적인 단체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이용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식재료 원가의 상승이다.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의 의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73.7%가 추가 비용 부담의 의사가 있었다(8).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가격 지불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일반농산물에 비해 10%의 가격을 더 지불할 수 있다는 견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4,9). 학교급식의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20.7%가 100원 미만, 23.6%가 100~200원 미만, 22.5%가 200~300원 미만으로 응답하여 과반수 이상이 300원 미만까지는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6). 하지만 친환경 농산물 사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5,6).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10)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 증가를 위하여서는 급식 지원금의 지원, 친환경농산물 단가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초등학교는 1인당 300원, 중학생은 300~450원, 고등학생은 450~600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소비 증진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많은 의견을 차지한 것이 '가격인하'로 조사되었으며(11) 친환경 농산물 품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가격이 가장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12).

대학교내 학생식당 이용 시 서비스 품질 속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Yang 등(13)의 연구에서는 가격(30.03%), 분위기(24.71%), 맛(23.69%), 거리(21.57%)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Kim(14)의 연구에서는 가격(65.42%), 소요시간(24.76%), 음식의 맛(9.82%)으로 조사되어 대학급식소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격이 매우 중요한 속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급식소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 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가격 인상임을 유추할

수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을 대학급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대학생의 인상 가격에 대한 인식을 과학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가격 민감성 측정법(Price Sensitivity Measurement: PSM)은 적절한 가격 결정을 위해서는 수요가 가격에 대응하여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감지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15) 이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산출된 저가한계점(Point of Marginal Cheapness: PMC)과 고가한계점(Point of Marginal Expensiveness: PME)을 통하여 수용가격대(Range of Acceptable Prices: RAP)를 분석함으로써 가격 책정 시 적정 범위를 제시할 수 있다. 대학교 학생식당의 가격민감성을 실시한 선행 연구(16)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대학급식 이용 시 급식비 지출에 대한 저가한계선이 850원, 고가한계선이 1,950원으로 수용가격대는 1,100원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외부 식당 이용 시에는 저가한계선이 1,800원, 고가한계선이 3,900원으로 수용가격대는 2,100원이었다. 사업체 급식소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가격민감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 직원식당 이용 시에는 저가한계선이 2,600원, 고가한계선이 3,900원으로 수용가격대는 1,300원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외부 식당 이용 시에는 저가한계선이 3,400원, 고가한계선이 6,000원으로 수용가격대는 2,6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17). 즉 대학생들의 수용가격대가 일반 성인의 수용가격대보다 적은 범위임을 볼 때 대학생들이 일반 성인들에 비해 가격에 매우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은 다른 연령에 비해 소비 성향이 높은 반면 생산성은 매우 낮은 연령층으로 구매 가격에 매우 민감하고 탄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16,18). 또한, 초·중·고등학교 급식의 경우 학생의 성장발육 및 건강, 위생 등에 대하여 전 국민적인 관심의 증가로 인해 친환경 농산물 사용 시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교 급식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가격 부담은 전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현실로 볼 때 대학교 급식에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 이용은 매우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급식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연구(5-8,10,19,20)가 이루어졌으나 대학교급식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으며 향후 대학 급식에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 시 가장 큰 제약점으로 예상되는 가격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남지역과 경남지역 대학급식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더불어 가격 인상률에 대한 적정선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으며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남지역과 경남지역의 대학생들의 학생식당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둘째, 대학급식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두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하고 셋째, 대학교내 학생식당 이용 시의 가격민감성과 친환경 농산물 사용 시 부가되는 가격 인상폭에 대한 가격민감성에 대하여 두 지역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및 기간

대학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이용에 대한 가격민감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편의표본 추출법을 사용하여 경남지역 K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600명과 전남지역 C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2008년 7월 15일에서 7월 25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남지역에서는 490부가 회수되어 81.7%의 회수율을 나타내었고, 전남지역에서는 570부가 회수되어 95%의 회수율을 보였다. 경남지역에서 회수된 490부의 설문 중 기입이 부정확한 10부를 제외한 480부가 분석에 이용되었고(이용률: 80.0%), 전남지역에서 회수된 570부의 설문 중 기입이 부정확한 15부를 제외한 555부의 설문이 분석에 이용되었다(이용률: 92.5%).

조사내용 및 방법

설문 내용은 크게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대학급식 이용 실태, 대학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이용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가격민감성 분석을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성별, 학년, 주거형태, 한 달 용돈 수준, 용돈출처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대학급식 이용 실태 문항으로는 교내 학생식당 이용 빈도, 학생식당을 이용하는 이유, 학생식당의 이용을 꺼리는 이유, 그리고 교내 학생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의 점심 해결 방안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학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이용에 대한 인식으로는 대학교내 급식소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찬성 여부, 친환경 농산물 사용으로 인하여 식사 가격이 상승할 경우 대학급식 이용 의사의 2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가격민감성 문항은 선행 연구(15-17,21-26)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며 '교내 학생식당을 이용할 경우'와 '교내 학생식당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교내 학생식당 이용 시 가격이 너무 싸서 품질에 이상이 있지 않은지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가격대, 음식의 가격이 싸서 사먹기 좋다고 생각되는 가격대, 음식의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가격대, 가격이 비싸서 사먹을 수 없다고 생각되기 시작하는 가격대를 각각 10원 단위까지 기입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대학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이용 시 부가되는 급식비의 상승에 대한 민감성을 조사하기 위해 오른 가격이 너무 싸서 친환경 식재 사용 여부가 의심이 되는 가격 상승폭(친환경 식재 사용 후 가격-친환경 식재 사용 전 가격), 오른 가격이 싸고 적절해서 구매하기에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 상승폭, 오른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가격 상승폭, 오른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가격 상승폭에 대해 각각 10원 단위까지 기재하도록 구성되었다.

자료 분석

조사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SPSS 13.0 PC용 통계 pack-

age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대학급식 이용 실태,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인식의 분석을 위해 기술 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 및 성별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사용 인식에 대한 차이 분석은 카이 검증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가격민감성 측정은 선행 연구(15-17,21-26)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비싸다', '너무 비싸다', '싸다', '너무 싸다'의 네 가지 가격으로부터 누적 분포도를 산출하고, 산출된 분포도에서 '싸다'와 '비싸다'의 그래프 만나는 지점인 무관심가격(Indifference Price: IDP)과 '너무 싸다'와 '너무 비싸다'의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인 최적 가격점(Optimal Pricing Point: OPP)을 산출한 후 가격의식긴장범위(Price Stress Range: 무관심가격과 최적 가격점 간의 차이)를 구하였다. 여기서 최적 가격점은 소비자의 거부감이 가장 적은 가격이며, 무관심 가격 형성 비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격의식긴장의 범위가 클수록 소비자가 가격에 민감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싸다'와 '비싸다'의 그래프를 역회전시켜 '비싸지 않다'와 '싸지 않다'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유도한 후 '너무 싸다'와 '싸지 않다'의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인 저가한계점(Point of Marginal Expensiveness: PME)과 '너무 비싸다'와 '비싸지 않다'의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인 고가한계점(Point of Marginal Expensiveness: PME)을 산출한 후 고가한계점과 저가한계점의 차이인 수용가격대(Range of Acceptable Prices: RAP)를 구하였다. 여기서 수용가격대가 좁을수록 가격민감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가격 책정 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 성별의 경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남지역은 58.0%, 경남지역은 51.9%로 전남지역과 경남지역 모두에서 여성이 다소 많았다.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주로 1, 2, 3학년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주거 형태의 경우 전남지역, 경남지역 모두 절반 이상이 자택에서 살고 있었다. 한 달 용돈의 경우 20만원에서 25만원 미만은 전남지역 122명(22.0%), 경남지역 104명(21.7%), 25만원에서 30만원 미만은 전남지역 162명(29.2%), 경남지역 99명(20.6%)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의 비율이 전남지역은 51.2%, 경남지역은 42.3%로 조사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만 30만원 이상인 학생이 경남지역(27.1%)이 전남지역(19.3%)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용돈의 출처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인 전남지역은 78.3%, 경남지역은 78.0%로 조사되어 조사대상의 대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급식 이용 실태

조사대상의 대학급식 이용 실태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Demographic attributes		Jeonnam area (N=555)		Gyeongnam area (N=480)	
		Frequency	Percent (%)	Frequency	Percent (%)
Gender	Male	233	42.0	231	48.1
	Female	322	58.0	249	51.9
Grade	Freshman	274	59.4	190	39.7
	Sophomore	115	20.7	119	24.8
	Junior	142	25.6	136	28.4
	Senior	16	2.9	31	6.5
	Graduates	6	1.1	2	0.4
	No response	2	0.4	1	0.2
Housing	Parents' house	313	56.4	280	58.4
	Self boarding	144	25.9	122	25.4
	Dormitory	79	14.2	72	15.0
	Relative's house	16	2.9	5	1.0
	No response	3	0.5	1	0.2
Monthly pocket money (won)	Less than 100,000	26	4.7	38	7.9
	100,000~less than 150,000	64	11.5	43	9.0
	150,000~less than 200,000	70	12.6	64	13.3
	200,000~less than 250,000	122	22.0	104	21.7
	250,000~less than 300,000	162	29.2	99	20.6
	More than 300,000	107	19.3	130	27.1
	No response	4	0.7	2	0.4
Origin for pocket money (won)	Parents	435	78.3	384	78.0
	Self supply	88	15.9	74	15.4
	Relatives	16	2.9	1	0.2
	Sisters or brothers	11	2.0	0	0.0
	No response	5	0.9	21	8.6

Table 2. Using status of university foodservice

Using status item		Jeonnam area (N=555)		Gyeongnam area (N=480)		Chi-Square (χ^2) ¹⁾
		Frequency	Percent (%)	Frequency	Percent (%)	
Using frequency of using university foodservice	Once in a week	345	62.2	217	45.2	32.52***
	2~4 times in a week	156	28.1	182	37.9	
	5~7 times in a week	34	6.2	52	10.8	
	8~10 times in a week	12	2.2	15	3.1	
	More than 11 times in a week	4	0.7	10	2.1	
	No response	4	0.7	4	0.8	
Reason for using campus foodservice	Low price	375	67.6	138	28.8	162.39***
	Time saving	127	22.9	279	58.1	
	Tasty food	21	3.8	16	3.3	
	Convenient using time	16	2.9	14	2.9	
	Comfortable facilities	5	0.9	3	0.6	
	Good sanitation	3	0.5	4	0.8	
	Sufficient quantity of food	2	0.4	5	1.0	
No response	6	1.1	21	4.4		
Dislike factors for campus foodservice	Untasty food	210	37.8	256	53.3	56.13***
	Limited menu selection	195	35.1	118	24.6	
	Long waiting line	34	6.1	11	2.3	
	Remote location	34	6.1	5	1.0	
	Insanitary food and environment	29	5.2	15	3.1	
	Noisy and crowded mood	18	3.2	25	5.2	
	Inconvenient operating time	11	2.0	10	2.1	
	Uncomfortable facilities	10	1.8	8	1.7	
	Insufficient quantity of food	7	1.3	11	2.3	
No response	7	1.3	21	4.4		
Substitute way for campus foodservice	Commercial restaurant outside campus	371	66.8	359	74.8	19.84**
	Delivery food	94	16.9	42	8.8	
	Snack	54	9.7	39	8.1	
	Lunch box	19	3.4	16	3.3	
	Eating nothing	9	1.6	16	3.3	
	No response	7	1.3	9	1.7	

1) Pearson Chi-Square. **p<0.01, ***p<0.001.

교내 학생식당 이용 빈도 조사 결과 전남지역과 경남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주1회' 이용하는 비율이 전남지역은 62.2%, 경남지역은 45.2%로 조사되어 전남지역이 경남지역에 비해 높은 응답수를 보였다. 하지만 그 외의 문항에서는 모두 경남지역이 높게 응답하였다.

대학급식소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남지역은 '가격이 저렴해서'(67.6%), '시간이 절약되므로'(22.9%)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경남지역은 '시간이 절약되므로'(58.1%), '가격이 저렴해서'(28.8%)의 순으로 조사되어 두 지역 간에 대학급식소를 이용하는 이유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대학급식소를 이용하기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두 지역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두 지역 모두 대학급식소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음식 맛이 좋지 않아서', '메뉴가 다양하지 않아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경남지역에서의 '음식 맛이 좋지 않아서'의 응답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전남지역보다 훨씬 높게 조사되었으며, 경남지역 대학생들이 현재 대학 급식에 있어서 음식에 대한 불만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교내 학생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점심 해결 방법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두 지역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전남지역은 371명(66.8%), 경남지역은 359명(74.8%)이 '교외 외식업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배달음식'의 빈도의 경우 전남지역(16.9%)이 경남지역(8.8%)보다 높았다.

대학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이용에 대한 인식

대학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이용에 대한 인식의 전남지역과 경남지역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대학급식소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이용에 대한 찬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남지역은 조사대상 중 496명(89.4%), 경남지역은 조사대상 중 379명(79.8%)이 찬성하여 두 지역

모두에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대학급식에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전남지역과 경남지역 간의 유의적인 차이($p < 0.001$)를 나타내어 전남지역에서의 찬성 비율이 경남지역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지역에 따른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의 경우 두 지역 간의 찬성 여부에 따른 의견 차이가 없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 두 지역 간의 찬성 여부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01$). 즉 여학생의 경우에는 대학급식에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전남지역과 경남지역 모두에서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학생의 경우 전남지역의 찬성 비율이 경남지역보다 높았고 반대 비율은 경남지역이 높았다.

친환경 농산물 사용으로 인하여 식사 가격 인상 시 대학급식소 이용 의사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은 조사대상의 326명(59.0%)이 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경남지역은 202명(42.5%)이 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두 지역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01$). 즉 대학급식소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으로 인하여 가격 인상 시 계속 급식소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남지역이 경남지역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지역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친환경 농산물 사용으로 인하여 식사 가격 인상 시 전남지역의 남학생은 137명(59.1%)인 절반 이상이 급식소를 계속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지만 경남지역 남학생은 141명(61.6%)인 절반 이상이 급식소의 이용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여 지역 간 차이를 보였다($p < 0.001$). 여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남지역은 189명(58.9%)인 절반 이상의 조사대상이 계속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경남지역은 132명(53.7%)인 절반 이상의 조사대상이 이용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여 지역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즉 대학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으로 인하여 식사 가격이 인상될 경우 전남지

Table 3. Differences of perception for using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 university foodservices between Jeonnam and Gyeongnam areas

Item	Area		Jeonnam area	Gyeongnam area	Chi-Square ²⁾ (χ^2)
	Gender				
Agreement for using environmental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in university foodservice	Male	Yes	208 (89.7%) ¹⁾	171 (74.7%)	17.691***
		No	24 (10.3%)	58 (25.3%)	
	Female	Yes	288 (89.2%)	208 (84.6%)	2.655
		No	35 (10.8%)	38 (15.4%)	
	Subtotal	Yes	496 (89.4%)	379 (79.8%)	18.374***
		No	59 (10.6%)	96 (20.2%)	
Purchasing intention for the meals using environmental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with the increased price	Male	Yes	137 (59.1%)	88 (38.4%)	19.615***
		No	95 (40.9%)	141 (61.6%)	
	Female	Yes	189 (58.9%)	114 (46.3%)	8.798**
		No	132 (41.1%)	132 (53.7%)	
	Subtotal	Yes	326 (59.0%)	202 (42.5%)	27.594***
		No	227 (41.0%)	273 (57.5%)	

¹⁾Percent within area. ²⁾Pearson Chi-Square. ** $p < 0.01$, *** $p < 0.001$.

Table 4. Differences of perception for using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 university foodservices between male and female customers

Item	Gender		Male	Female	Chi-Square ²⁾ (χ^2)
	Area				
Agreement for using environmental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in university foodservice	Jeonnam area	Yes	208 (89.7%) ¹⁾	288 (89.2%)	0.034
		No	24 (10.3%)	35 (20.8%)	
	Gyeongnam area	Yes	171 (74.7%)	208 (84.6%)	7.180**
		No	58 (25.3%)	38 (15.4%)	
Purchasing intention for the meals with the increased price	Jeonnam area	Yes	137 (59.1%)	189 (58.9%)	0.002
		No	95 (40.9%)	132 (41.1%)	
	Gyeongnam area	Yes	88 (38.4%)	114 (46.3%)	3.039*
		No	141 (61.6%)	132 (53.7%)	

¹⁾Percent within gender. ²⁾Pearson Chi-Square. *p<0.05, **p<0.01.

역의 남학생, 여학생 모두 계속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높았지만 경남지역의 경우 남학생, 여학생 모두 이용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으로 인하여 식사 가격이 인상될 경우 예상되는 식수 감소는 경남지역이 전남지역보다 더 클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르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마케팅 분야에서 소비 시장을 세분화하기 위해 지리적 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 사이코그래픽 변수, 행동 변수의 다양한 변수들이 사용되는데(16,27)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성별 변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전남지역과 경남지역의 대학생의 대학 급식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학급식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찬성 여부 문항에서는 전남지역에서는 남녀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경남지역에서는 남녀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어(p<0.01) 여학생의 찬성 비율이 높았지만 남학생의 찬성 비율은 낮았다. 대학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으로 인하여 식사 가격 인상 시 대학급식소의 이용 여부에 대한 문항에서도 전남지역에서는 남녀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경남지역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어(p<0.01) 이용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계속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즉 친환경 농산물 이용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전남지역과 경남지역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남지역의 경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경남지역의 경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결과적으로 경남지역의 인식의 차이를 주도하는 집단은 남성임을 알 수 있었다.

가격민감성 분석

대학 급식비에 대한 가격민감성 분석: 대학급식 이용시 지불하게 되는 급식비에 대한 대학생들의 가격 민감성을 분석한 결과 무관심가격은 전남지역의 경우 2,300원으로 23% 수준에서 결정되었고(Fig. 1), 경남지역의 경우 2,500원으로 20% 수준에서 결정되었다(Fig. 2). 무관심가격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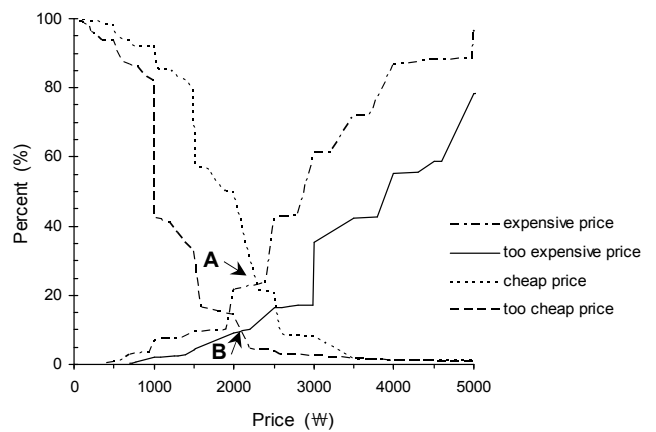


Fig. 1. Price stress of a meal of university foodservice in Jeonnam area. A: Indifference price=₩2,300, B: Optimal pricing point=₩2,100, Price stress range (A-B)=₩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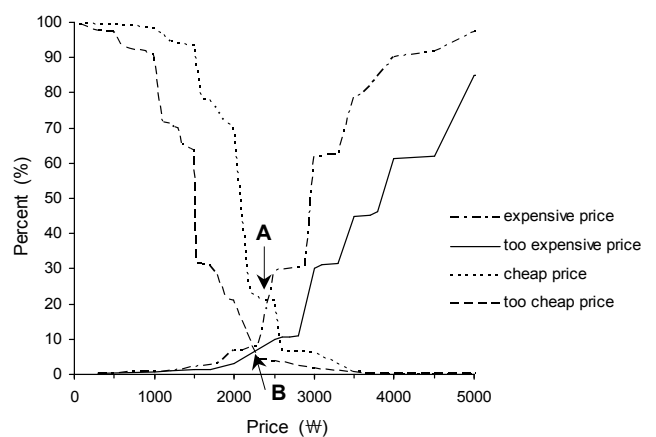


Fig. 2. Price stress of a meal of university foodservice in Gyeongnam area. A: Indifference price=₩2,500, B: Optimal pricing point=₩2,280, Price stress range (A-B)=₩220.

비율이 낮을수록 가격에 민감한 것으로 간주하는데(16,24-26) 경남지역의 무관심가격 형성 비율(20%)이 전남지역의 무관심가격 형성 비율(23%)보다 낮으므로 경남지역 대학생이 전남지역의 대학생보다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할 수 있겠다.

최적 가격점은 전남지역은 2,100원으로(Fig. 1), 경남지역

은 2,280원으로 분석되었다(Fig. 2). 가격의식긴장범위는 전남지역은 200원(2,300~2,100원), 경남지역은 220원(2,500~2,280원)으로 분석되었다. 가격의식긴장이 클수록 가격에 민감한 것을 의미한다는 이론(16,24-26)에 근거할 때 경남의 대학생들이 전남의 대학생들보다 가격에 조금 더 민감하다고 하겠다.

저가한계점을 분석한 결과 전남의 경우 1,430원인 것으로 나타났고(Fig. 3), 경남의 경우 1,680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4). 고가한계점은 전남의 경우 3,200원(Fig. 3), 경남의 경우 3,370원(Fig. 4)으로 나타났다. 수용가격대는 전남의 경우 1,770원(3,200~1,430원), 경남의 경우 1,690원(3,370~1,680원)으로 나타났다. 수용가격대의 범위가 좁을수록 가격 민감성이 높아지므로(16,24-26) 경남의 대학생들이 전남의 대학생들보다 대학급식에 대한 가격에 조금 더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전남지역의 현재 대학급식의 가격은 2,300원에서 2,800원

사이로 본 연구에서 분석된 수용가격대인 1,770원(3,200~1,430원)에 포함되고 있으며 경남지역도 현재 대학급식의 가격은 1,700원에서 2,500원 사이로 본 연구에서 분석된 수용가격대인 1,690원(3,370~1,680원)에 포함되어 두 지역 모두 현재 대학급식의 가격은 소비자가 수용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두 지역의 대학급식 운영자는 가격 인상이 본 연구에서 분석된 가격수용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고가한계점을 넘어서 가격을 책정하게 되면 소비자인 대학생들은 교내 학생식당이 아닌 다른 대체안을 찾게 될 것이며, 저가한계점을 벗어나게 되면 급식 품질을 의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16)에서는 무관심가격 형성 비율이 10%, 수용가격대는 1,100원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대상인 전남지역과 경남지역 대학생보다 가격에 더 민감함을 알 수 있었지만 가격의식긴장범위의 경우 150원으로 분석되어 오히려 경남지역과 전남지역 대학생이 더 가격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위탁급식소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연구(17)에서는 무관심가격 형성 비율이 20%, 가격의식긴장 범위는 100원, 수용가격대는 1,300원으로 분석되어 오히려 사업체 급식소 이용 고객이 본 연구 조사대상인 전남 및 경남지역 대학생과 서울지역 대학생(16)보다 식사 가격에 더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식당(21), 패밀리 레스토랑(15), 피자레스토랑(22)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가격의식긴장범위와 가격수용대는 모두 본 연구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어 단체급식과 외식업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조사시기 및 조사대상에 따라 가격민감성이 상이하게 분석됨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가격민감성 분석을 실시하여 집단 간 비교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대학급식에 대한 전남지역과 경남지역의 가격민감성을 분석한 결과 무관심 형성 비율(전남 23% > 경남 20%), 가격의식긴장범위(전남 200원 < 경남 220원), 수용가격대(전남 1,770원 > 경남 1,690원)의 세 가지 기준 모두에서 경남지역 대학생은 무관심가격비율이 낮고, 가격의식긴장범위가 넓고, 수용가격대가 좁게 나타나 전남지역 대학생보다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5). Table 2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경남지역의 대학생의 용돈 수준이 전남지역보다 다소 높고 교내 급식소를 이용하는 이유에서 경남지역의 대학생들의 대부분이 낮은 가격보다는 '시간이 절약되므로'라고 응답하였기에 대학급식소의 낮은 식사 가격은 경남지역의 대학생들에게 호소력이 적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향후 경남지역 대학급식소의 경우 가격 인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전남지역의 대학생의 경우 비록 경남지역 대학생들에 비해 용돈 수준은 다소 낮고 대학급식소를 이용하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서'라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지역 대학생들에 비해 가격에 대한 민감도는 낮은 편이므로 전남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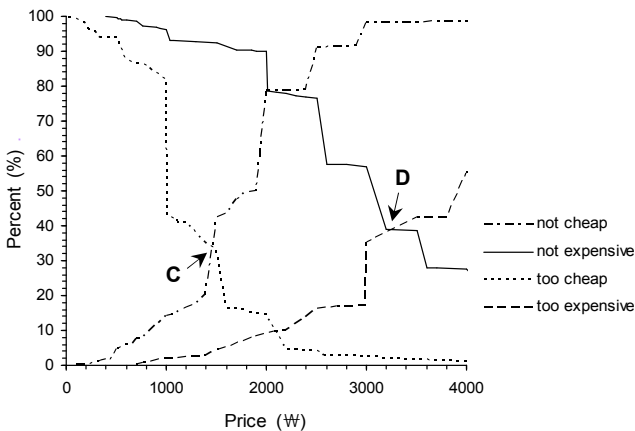


Fig. 3. Range of acceptable prices of a meal of university foodservice in Jeonnam area. C: Point of marginal cheapness = ₩1,430, D: Point of marginal expensiveness = ₩3,200, Range of acceptable prices (D-C) = ₩1,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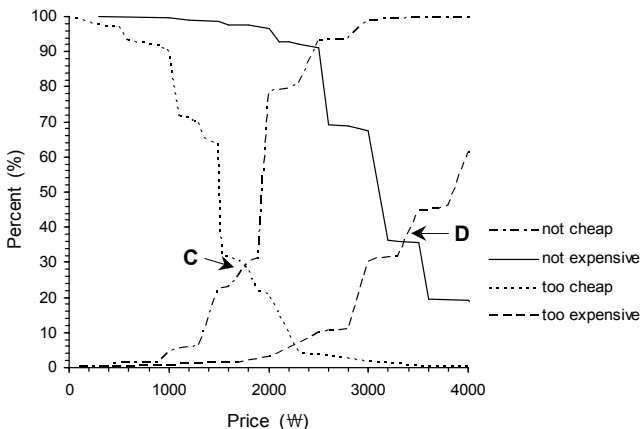


Fig. 4. Range of acceptable prices of a meal of university foodservice in Gyeongnam area. C: Point of marginal cheapness = ₩1,680, D: Point of marginal expensiveness = ₩3,370, Range of acceptable prices (D-C) = ₩1,690.

Table 5. Price sensitivity analysis of university foodservice and price increase using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 Jeonnam and Gyeongnam areas

Item	Price sensitivity analysis of university foodservice		Price sensitivity analysis of price increase when using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university foodservice	
	Jeonnam area	Gyeongnam area	Jeonnam area	Gyeongnam area
Indifference price (IDP)	₩ 2,300	₩ 2,500	₩ 890	₩ 1,050
Percentage of indifference price (IDP)	23%	20%	36%	46%
Optimal pricing point (OPP)	₩ 2,100	₩ 2,280	₩ 1,030	₩ 1,450
Price stress range	₩ 200	₩ 220	₩ 140	₩ 400
Point of marginal cheapness (PMC)	₩ 1,430	₩ 1,680	₩ 500	₩ 790
Point of marginal expensiveness (PME)	₩ 3,200	₩ 3,370	₩ 1,170	₩ 1,820
Range of acceptable prices (RAP)	₩ 1,770	₩ 1,690	₩ 670	₩ 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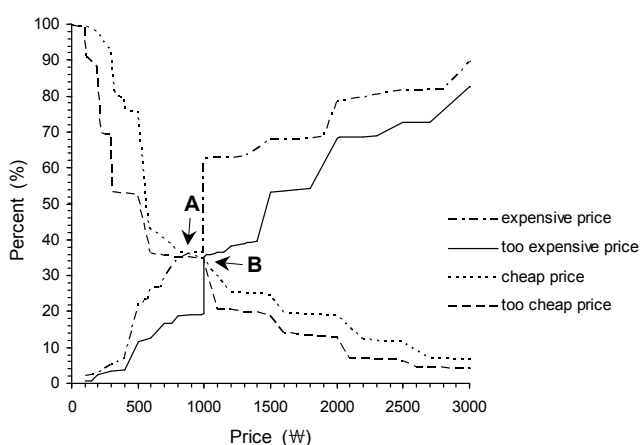


Fig. 5. Price stress for the price increase when using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university foodservice (Jeonnam area). A: Indifference price=₩890, B: Optimal pricing point=₩1,030, Price stress range (A-B)=₩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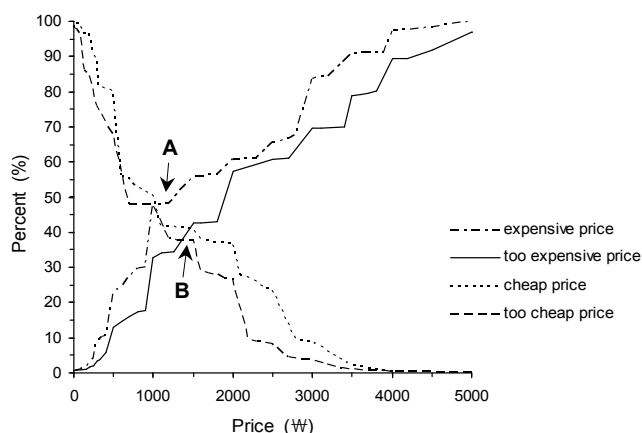


Fig. 6. Price stress for the price increase when using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university foodservice (Gyeongnam area). A: Indifference price=₩1,050, B: Optimal pricing point=₩1,450, Price stress range (A-B)=₩400.

급식소의 경우 다양한 촉진(promotion) 전략과 함께 수용가 가격대 범위(1,430~3,200원) 내에서의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가격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16,24,25).

대학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이용 시 가격 상승에 대한 가격민감성 분석: 대학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이용 시 부가되는 급식비의 상승에 대한 무관심가격을 분석한 결과 전남의 경우 890원(Fig. 5), 경남의 경우 1,050원(Fig. 6)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관심가격 형성 비율이 낮을수록 가격에 민감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16,23-26) 전남지역의 무관심가격 형성 비율은 36%이며, 경남지역의 무관심가격 형성 비율은 46%로 나타나 전남지역 대학생이 경남지역 대학생보다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적 가격점의 경우 전남은 1,030원(Fig. 5), 경남은 1,450원(Fig. 6)으로 분석되었다. 가격의식긴장범위는 전남의 경우 140원(1,030~890원), 경남의 경우 400원(1,450~1,050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의식긴장범위가 넓을수록 가격에 민감한 것을 의미한다는 이론(16,23-26)에 근거할 때 경남의 대학생들이 전남의 대학생들보다 친환경 농산물 사용 시 가격상승폭에 더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저가한계점을 분석한 결과 전남의 경우 500원(Fig. 7),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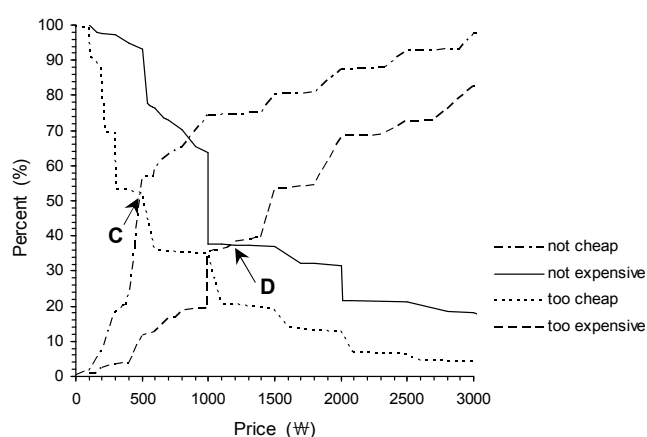


Fig. 7. Range of acceptable price for the price increase when using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university foodservice (Jeonnam area). C: Point of marginal cheapness=₩500, D: Point of marginal expensiveness=₩1,170, Range of acceptable prices (D-C)=₩670.

남의 경우 790원(Fig. 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가한계점은 전남의 경우 1,170원(Fig. 7), 경남의 경우 1,820원(Fig. 8)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가가격대는 전남의 경우 670원(1,170~500원), 경남의 경우 1,030원(1,820~790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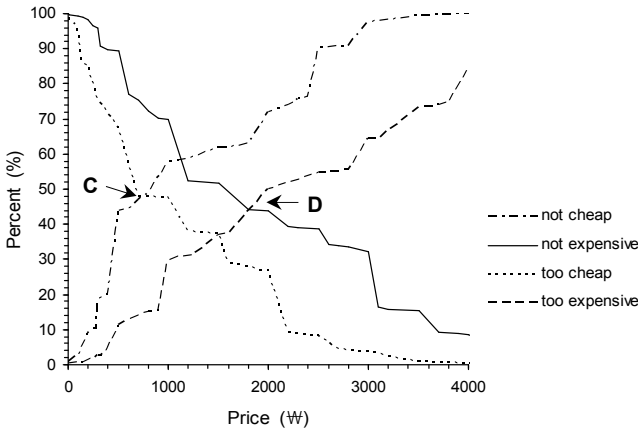


Fig. 8. Range of acceptable price for the price increase when using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university foodservice (Gyeongnam area). C: Point of marginal cheapness=₩790, D: Point of marginal expensiveness= ₩1,820, Range of acceptable prices (D-C)=₩1,030.

수용가격대의 범위가 좁을수록 가격민감성이 크므로(16, 23-26) 전남지역의 대학생들이 경남지역의 대학생들보다 친환경 식재 이용 시의 가격 상승에 대해 더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무관심 형성 비율(전남 36% < 경남 46%), 가격의식긴장범위(전남 140원 < 경남 400원), 수용가격대(전남 670원 < 경남 1,030원)의 세 가지 기준 중 가격의식긴장 범위를 기준으로 할 때는 경남지역 대학생이 전남지역 대학생보다 가격에 더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무관심가격 형성 비율과 수용가격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전남지역 대학생이 경남지역 대학생보다 더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Table 5).

향후 대학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 가격 인상폭은 수용가격대 즉, 전남지역은 500원에서 1,179원 사이, 경남지역은 790원에서 1,820원 사이를 벗어나지 안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경남지역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 사용으로 가격 인상 시 대학급식소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인 57.5%를 차지하였으므로 가격 인상폭은 소비자의 거부감이 가장 적은 가격인 최적 가격점인 1,450원 미만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경남지역 대학생들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 사용으로 인하여 가격 인상 시 구매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남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Table 3) 대학급식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가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절약되므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Table 2). 그러므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 대학급식을 실시할 경우 고객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급식 품질 향상이 함께 동반된 신중한 가격 인상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전남지역 대학생의 경우 대학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으로 가격 인상 시 급식소를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이용하지 않겠다는 비율보다 높았다. 하지만 대학급식소를 이용하는 이유가 '낮은 가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대학 급식을 이용함에 있어서 식사 가격에 대한 매력도가 높은 집단이므로 수용가격대 범위 내에서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대학급식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의 찬성 비율은 전남지역이 경남지역보다 높았으며, 친환경 농산물 사용으로 인하여 가격 인상 시 대학급식소 이용 의사 또한 전남지역이 경남지역보다 높았다. 가격민감성 분석 결과 현재 대학급식에 대하여서는 무관심 형성 비율, 가격의식긴장범위, 수용가격대의 세 가지 기준에서 모두 경남지역이 전남지역보다 더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대학급식에 대한 가격민감성 부분에서는 무관심가격 형성 비율과 수용가격대 기준으로는 전남지역이 경남지역보다 더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격의식긴장범위를 기준으로서는 경남지역이 전남지역보다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전남지역 대학생들이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찬성 및 추가 비용에 대한 지불 의사가 높긴 하였지만 용돈 수준이 다소 낮고 대학급식소를 이용하는 이유가 '낮은 가격'이며 대학급식소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맛이 없어서'와 '메뉴가 다양하지 않아서'이므로 향후 친환경 농산물을 대학급식에 적용할 경우 가격민감성 분석에서 나타난 가격수용대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한 가격 인상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음식 품질의 향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전남지역 대학생들이 용돈 수준이 낮고 현재 학생식당을 이용하는 이유가 '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찬성 비율 및 추가 비용 지불 의사가 경남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남지역은 현재 용돈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급식에 있어서 전남지역보다 가격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향후 친환경 급식에 대한 반대 비율이 낮고 추가 비용에 대한 지불 의사가 낮게 나타났다. 이렇듯 두 지역 간의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궁극적으로 두 지역 간의 음식 문화, 음식에 대한 관심과 가치관에 따른 차이라고 사료되며 이에 대하여 향후 지역 간의 비교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겠다.

요 약

본 연구는 전남지역과 경남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교내 학생식당에 대한 가격민감성과 대학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이용 시 부가되는 가격인상폭에 대한 가격민감성의 두 지역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대학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대학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사용 시 가격인상률에 대한 걱정선을 제시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2008년 7월 15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경남지역과 전남지역 대학생들에게 각각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경남지역에서

는 490부, 전남지역에서는 570부가 회수되었고 그중 부적절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경남지역은 480부(이용률: 80.0%), 전남지역은 555부(92.5%)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조사대상의 일반 사항을 조사한 결과 경남지역과 전남지역 간의 큰 차이는 없었으며, 다만 경남지역 대학생들의 용돈 수준이 전남지역 대학생들의 용돈 수준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대학급식 이용실태에서 경남지역 대학생들이 전남지역 대학생들보다 학교 내 학생식당을 좀 더 자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p < 0.001$), 학교 내 급식소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하여서는 전남지역 대학생들은 '가격이 저렴해서'라고 응답한 비율(67.6%)이 많았으며, 경남지역 대학생들은 '시간이 절약되므로'라고 응답한 비율(58.1%)이 많아 두 지역 간에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01$). 또한 대학 내 학생식당의 이용을 꺼리는 이유에 대하여서는 두 지역 모두 '음식 맛이 좋지 않아서', '메뉴가 다양하지 않아서'의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경남지역에서 '음식 맛이 좋지 않아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지역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둘째, 대학급식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이용에 대한 찬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남지역은 조사 대상 중 496명(89.4%), 경남지역은 조사 대상 중 379명(79.8%)이 찬성하였으며, 전남지역과 경남지역 간의 유의적인 차이($p < 0.001$)를 나타내었다. 친환경 농산물 사용으로 인하여 식사 가격 인상 시 대학급식 이용 의사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은 조사대상의 326명(59.0%)이 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경남지역은 202명(42.5%)이 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두 지역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01$). 셋째, 대학교내 학생식당에 대한 가격 민감성 분석 결과 무관심가격의 경우 전남지역은 2,300원, 경남지역은 2,500원이었으며, 최적 가격점은 전남지역은 2,100원, 경남지역은 2,280원이었다. 가격의식긴장은 전남은 200원, 경남은 220원이었다. 수용가격대는 전남의 경우 1,770원(1,430~3,200원), 경남의 경우 1,690원(1,680~3,370원)으로 나타났다. 즉 무관심 형성 비율, 가격의식긴장범위, 수용가격대의 세 가지 기준 모두에서 경남지역 대학생은 전남지역 대학생보다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친환경 농산물을 대학급식에 사용할 경우 가격 인상폭에 대한 가격민감성 분석 결과 무관심 가격은 전남지역은 890원, 경남지역은 1,050원, 최적 가격점은 전남은 1,030원, 경남은 1,450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가격의식긴장은 전남은 140원, 경남은 400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용가격대는 전남지역은 670원(500~1,170원), 경남지역은 1,030원(790~1,820원)으로 나타났다. 가격의식긴장 범위를 기준으로 할 때는 경남지역 대학생이 전남지역 대학생보다 가격에 더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무관심가격 형성 비율과 수용가격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전남지역 대학생이 경남지역 대학생보다 더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다섯째, 향후 두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대학급식에서 사용할 경우 가격 인상폭은 수용가격대 즉 전남지역은 500원에서 1,170원 사이, 경남지역은 790원에서 1,820원 사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경남지역의 경우 가격 인상 시 대학급식소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므로 소비자의 거부감이 가장 적은 가격인 최적 가격점인 1,450원 이하의 수준에서 가격 인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시에 현재 대학급식에 대한 가격 민감도가 높은 편이므로 친환경 농산물 사용 시 신중한 가격 인상 정책과 함께 가격에 상응하는 급식 품질의 향상이 반드시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전남지역의 경우 대학급식에 있어서 가격에 대한 매력도가 높은 특징이 있으므로 가격 인상 시 인상폭은 수용가격대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표본 추출에 있어서 전남지역과 경남지역의 각각 한 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좀 더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대학 급식에 대한 지역 간의 인식 차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전남과 경남의 지역 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의 비교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7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문헌

1. Kim SO, An KW, Kim MH, Shim JH. 2007. Evaluating some influential factors on consumers' purchasing decision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EAP) using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15: 339-353.
2. Ahn PR. 2005. A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purchasing behavior for environment-friendly agri-products on consumers in Gwangju.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13: 229-242.
3. Kim KD, Lee JY, NamKung S. 2008. Purchase behavior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by housewives in Seoul area. *J Korean Soc Food Sci Nutr* 37: 1667-1673.
4. Sin CR, Kim JS. 2008. A survey on the consumer's purchasing pattern for environmental-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42: 77-91.
5. Lee YS, Park MJ. 2008. Parental perception and satisfaction with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used for school foodservice in elementary school in Daejeon. *Korean J Food Culture* 23: 737-747.
6. Nam YS. 2009. Parent's awareness and satisfac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 middle-school foodservice in Masan. *MS Thesis*. Kyungnam University, Gyeongnam, Korea. p 36, 41.
7. Chang HS, Lee MJ. 2008. The perception for management

- of school foodservice using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mothers in Gunsan.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3: 867-878.
8. Lee JE, Heo SW. 2005. An analysis on the satisfaction and additional cost scale of environmental-friendly agri-product school meal program.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13: 145-159.
 9. Kim SS. 2007. A study on consumer's attitude for food safety and purchase of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 15-32.
 10. Lee YS, Lee NO, Ko SH. 2009. A survey on use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for school food service by dietitians in Chungnam province.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4: 556-564.
 11. Sung MJ, Choi HS, Chang KJ. 2008. Perception on environment and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of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Incheon area. *J Korean Soc Food Sci Nutr* 37: 317-324.
 12. Choi HS, Chang KJ. 2007. The utiliza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of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Incheon area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2: 742-751.
 13. Yang IS, Shin SY, Lee HY, Lee SJ, Chae IS. 2000. Constructing strategic management plan for university foodservice using conjoint analysis and multidimensional scaling. *Korean J Dietary Culture* 15: 51-58.
 14. Kim CJ. 2003. Case study for identifying attributes for the selection of college foodservice by conjoint analysis. *M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 64.
 15. Choi MK, Lee BS. 2006. A case study for pricing strategy planning of a family restaurant using price-sensitivity measurement.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1: 253-260.
 16. Baek SH. 1999. Price sensitivity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in foodservice operation. *M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 10, 39-50.
 17. Woo EJ. 2008. Analysis of consumer's behavior, price sensitivity, and price elasticity by money attitude in institutional foodservice. *M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 11-13, 40-46, 51.
 18. Kim HA. 2007. Price elasticity analysis of foodcourt-style university food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 49-59.
 19. Heo SW. 2006. Development process and strategies for school lunch program us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roducts.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14: 41-53.
 20. Kim YS, Moon HK. 2010. The microbiological quality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ordinary agricultural vegetables used in a school foodservices. *J Korean Diet Assoc* 16: 49-61.
 21. Lee MA. 2007. Analysis of foreign customers' price sensitivity on Korean traditional restaurants using price sensitivity measurement. *Korean J Nutr* 36: 124-130.
 22. Chae IS, Lee MA, Shin SY, Yang IS. 2002. The analysis of brand perception and price sensitivity in pizza restaurant: customer & operator's viewpoint.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5: 161-176.
 23. Son MY, Ryu JC, Kim TK. 2009. An analysis of consumers preferences and price sensitivity when purchasing domestic wine. *Korean J Food Preserv* 16: 17-22.
 24. Son JY, Han SB. 2003. A study on the price-sensitivity measurement of hotel summer package. *Research of Hotel Resort* 1: 113-125.
 25. Han SY, Kim JJ. 2008. Developing room pricing marketing strategy of the national recreation forest using price-sensitivity measurement. *Jour Korean For Soc* 97: 118-126.
 26. Gabor A, Granger CWJ. 1996. Prices as an indicator of quality: report on an inquiry. *Economica* 33: 43-70.
 27. Kotler P, Bowen JT, Makens JC. 2005. *Marketing for hospitality and tourism*. 4th ed. Prentice Hall, New Jersey, USA. p 264-265.

(2010년 5월 3일 접수; 2010년 7월 1일 채택)